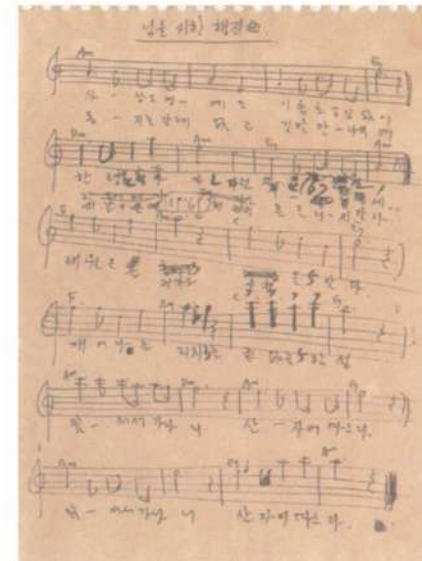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기록



임을 위한 행진곡

백기원 작사
황석영 개사
김중률 작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 데 없고 깃발만 나무껴
새 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라라
앞서서 가나니 산 자여 따라라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민중항쟁을 추모하는 노래이자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대표하는 민중가요이다. 대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노래가 되었다. 윤상원과 박기순이 영혼결혼식에 헌정된 노래이다. 재야운동가 백기원의 장편시를 소설가 황석영이 개사하였고, 작곡가 김중률이 작곡하여 세상에 나왔다.

1981년 황석영의 자택에서 카세트 녹음기에 녹음되어 처음으로 공개됐다. 윤상원은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18 시민군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다가 도청에서 계엄군에 의해 살해됐다. 박기순은 1978년 말 전남대 국사교육학과 재학 중 강제 휴학되어 들불야학을 창립하여 노동운동을 펼치다가 사망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식순

일시 2024. 5. 17(금) 09:30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제1부 추모제

09:30 ~ 12:00

-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제례
-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 식전행사 공연 - 난타

제2부 추모식

10:30 ~ 12:00

- 개식선언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추 모 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하성일 광주지방보훈청장
- 유가족대표 인사말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 추모시 낭송
-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 헌화 및 분향

44년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월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80년 5월 이후 5·18특별법 제정부터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우리가 이룬 성취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5·18을 왜곡·폄훼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가해자 없는 역사가 너무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되레 피해자가 숨어야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탓입니다. 가해자가 없는 역사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고 우리 사회도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기록으로 남겨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해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중단시키고 그 정신을 온 국민이 배우고 기억하는 가치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올해 44주년은 내년 45주년과 2030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12개로 흩어져 있던 5·18관련 조례들을 1개의 통합조례로 집대성했습니다. 온 국민과 전 세계가 함께 즐기는 5월 민중축제로 만들어 추모와 축제가 공존하는 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제 내년 45주년은 더는 미룰 수 없는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년으로 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개원을 앞둔 22대 국회와 손잡고 이를 완수할 것입니다.

45주년, 50주년을 바라보며 5·18을 ‘나-들’의 것, 세계의 것, 미래의 것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월광주에서는 누구나 광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5·18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함께 힘 모아나갑시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해 주신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5월 17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열망으로 고귀한 희생을 보여주신 오월 영령님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날의 아픔을 안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과 숭고한 오월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오신 유공자 여러분께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4년 전 5월, 광주·전남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냈습니다. 시도민은 불의한 군부독재에 맞서 거리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행정질서가 마비된 상태에서도 놀라운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자치와 도덕성을 지키며 수준 높은 민주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의 뜨거운 숨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월의 연대정신은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정의와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월의 역사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질 않고, 진실은 침잠해 있습니다. 진상 조사의 핵심인 암매장과 발포 책임자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한 채 5·18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러분과 함께 그날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미완의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통해 거룩한 오월정신을 온 국민이 새겨야 할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오월 영령의 넋을 기리며, 높은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삼가 오월 영령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반갑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정무창입니다.

오늘 우리는, 5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폭거에 의연히 항거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낸 5월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44년 전 그날의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안고 살아오신 부상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월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모제를 준비해주신 유족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유가족 여러분 !

5·18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은 혼돈의 시대를 밝힌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대정신이 되었고, 세계인들에게는 민주·인권·평화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왜곡과 폄훼로 아직까지 미완의 역사로 남은 점은 여전히 아픔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정의가 승리한 것처럼 광주정신도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 진실까지 규명하고 5·18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합니다. 오월이 남긴 나눔과 연대의 공동체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자 책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기본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을 연구하고 의견을 수렴한 끝에, 5·18 관련 조례 12개를 통·폐합하고 체계화 했습니다. 5·18이 당면한 과제와 미래를 위한 고민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노력도 분명히 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있다는 사실을 광주시민들은 늘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22대 국회가 곧 시작됩니다. 오는 22대 국회에선 5·18 헌법 전문 수록이 꼭 이뤄지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역 민심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제44주기를 맞아 5월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다시 한 번 깊이 새기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2024년 5월 17일

하성일 광주지방법보훈청장

안녕하십니까? 광주지방법보훈청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님들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빕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까지 슬픔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80년 5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많은 시민과 학생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광주에서 타올랐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밑거름이 되었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민주·인권·정의를 꿈꾸었던 5·18정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 우리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는 결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5·18을 비롯한 많은 민주영령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분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광주지방법보훈청은 5·18정신이 미래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추모제가 5·18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가슴에 되새기고,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5·18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

불의와 독재에 항거하고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기 위해 일어난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어느새 4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오월 가족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5·18정신을 보전·계승하고, 가려진 역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고,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와 감내해야만 하는 슬픔의 무게는 변함없이 버겁기만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전환점이 된 오월 정신을 굳건히 지켜가야 합니다.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시민들이 보여준 희생과 나눔 정신, 그리고 연대의 대동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여야 합니다.

1980년 5월, 불의한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한 희생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잔혹한 신군부의 집권 음모를 온몸으로 규탄하고 중무장한 계엄군 앞에서 불굴의 의지로 항거했던 학생과 시민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이었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한 시민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은 양심을 지키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현재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가 답할 차례입니다. ‘모두의 오월, 하나 되는 오월’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보고서는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이나 희생자의 암매장, 계엄군에 의해 저질러진 비도덕적인 만행 등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0년, 그날의 진실이 여전히 가려져 있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를 위해 올해에는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바쳐 이루고자했던 민주, 인권, 평화의 대동 세상을 구현하는 기반을 닦고 5·18정신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는 소모적인 논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환경을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 시민들의 기록과 증언이 담긴 5·18기록물은 201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인류가 기억하고 지켜가야 할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때 오월정신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堂堂하게 승화되고 자유와 평화, 사회통합의 계기가 만들어 질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을 맞이하여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정의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신 오월영령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7일

제부 추모제



식전행사















제2부 추모식



추모식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김남주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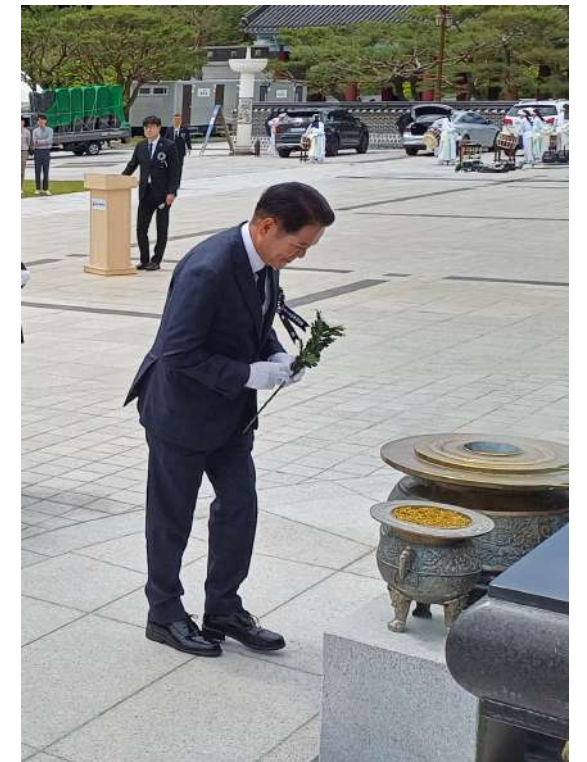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을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눕지도 않았다

오월은 왔다 피 묻은 야수의 발톱과 함께
오월은 왔다 피에 주린 미친개의 이빨과 함께
오월은 왔다 아이 밴 어머니의 배를 가르는 대검의 병사와 함께
오월은 왔다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들의 눈동자를 파먹고
오월은 왔다 자유의 숨통을 갈아뭇개는 미제 탱크와 함께 왔다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오월은 바람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오지도 않았고
오월은 풀잎처럼 그렇게 서정적으로 눕지도 않았다

오월은 일어섰다 분노한 사자의 울부짖음과 함께
오월은 일어섰다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과 함께
오월은 일어섰다 파괴된 인간이 내지르는 최후의 절규와 함께
그것은 총칼의 숲에 뛰어든 자유의 육탄이었다
그것은 불에 달군 철공소의 망치였고
그것은 식당에서 뛰쳐나온 뽀이들의 식칼이었고
그것은 술집의 아가씨들의 순결의 입술로 뭉친 주먹밥이었고
그것은 불의의 대상을 향한 인간의 모든 감정이
사랑으로 응어리져 증오로 터진 다이너마이트의 폭발이었다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지는 풀잎으로
바람은 야수의 발톱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노래하지 말아라 오월을 바람에 일어서는 풀잎으로
풀잎은 학살에 저항하는 피의 전투에는 어울리지 않는 시의 어법이다
피의 학살과 무기의 저항 그 사이에는
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자격도 없다
적어도 적어도 광주 1980년 오월의 거리에는!









한강, 「소년이 온다」 (창비 2014) p.117~118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날 군인들이 지급받은 탄환이
모두 팔십만발이었다는 것을. 그때 그 도시의 인구가 사십만이었습니니다.
그 도시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두발씩 죽음을 박아넣을 수 있는
탄환이 지급되었던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학생 대표의 말대로 우리가 충기를 도청 로비에 쌓아놓고 깨끗이
철수했다면, 그들은 시민들에게 충구를 겨눴을지도 모릅니다.
그 새벽 캄캄한 도청 계단을 따라 글자 그대로 팔팔 소리를 내며
흐르던 피가 떠오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건 그들만의 죽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죽음들을 대신한 거였다고. 수천곶절의 죽음, 수천곶절의 피였다고.
(한강·소설가)









누가 그날을 모른다 말하리

고정희 시인

넋이여,
망월동에 잠든 넋이여
하늘이 푸르러 눈물이 나네
산꽃 들꽃 피어나니 눈물이 나네
누가 그날을 잊었다 말하리
누가 그날을 모른다 말하리
가슴과 가슴에서 되살아나는 넋
칼바람 세월 속에 우뚝 솟은 너
진달래 온 산에 붉게 물들어
그날의 피눈물 산천에 물들어
꽃 울음 가슴에 문지르는 어머니
그대 이름 호명하며 눈물이 나네
목숨 바친 역사 뒤에 자유는 남는 것
시대는 사라져도 민주 꽃 만발하리
너 떠난 길 위에 통일의 바람 부니
겨레 해방 봄소식 눈물이 나네





5월이 오면

오승준 시인

하늘도 땅도 기도하는
추모의 계절 5월이 오면
님들이 생각납니다
간절하게 생각납니다
1980년 5월
자유, 정의, 민주를 위해
군사독재에 맞서 싸우다가
영원히 살아있는
푸른 솔, 붉은 꽃으로 스러져간
님들이 생각납니다
오월 명령
님들이 있었기에
내 삶의 풍요
내 나라의 발전
지금
배부른 들판에서
행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구름도 바람도 쉬어가는
신록의 계절 5월이 오면
님들이 생각납니다
지독하게 생각납니다
님들이시여!
눈부신 햇살로
반짝이는 별빛으로
편히 잠드소서
그날이 오면
앞의 창으로
그리움의 언어로
다시 오소서





누이의 헌혈가

김해화 시인

사랑하는 오빠
사랑하는 조국의 총칼에 찢겨
오월 푸르름 한가운데가 질퍽이도록
뜨거운 피를 쏟으시다가
뜨겁던 가슴이 식어간다고
우리들의 도시가 외쳐대는 오후에
당신의 곁으로 달려갔어요
피어린 거리를 지나 찾아간
대학병원은
우리들의 주검과 신음으로 출렁대고 있었어요

오빠 보셨지요
제 가느란 팔목에서 흘러나가던 영산강의 마음
저의 꿈은 먼 훗날 착한 지어미
하늘처럼 눈이 맑은 아들 딸 낳아
이 땅의 자유를 지키는 아들이 되고
이 땅의 자유를 사랑하는 딸이 되게 하는 것
그 꿈도 식지 않고 흘러 나가는 것
오빠 보셨지요

지금도 들리는 총소리 총소리
누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누구의 가슴을 향해
저렇듯 싸늘하게 총을 쏘아야 하나요

아아
귀를 막고 돌아선 해지는 거리에서
젊음이 지는 거리에서
오빠 저는 무등산을 보았어요
뜨거운 산의
몸부림을 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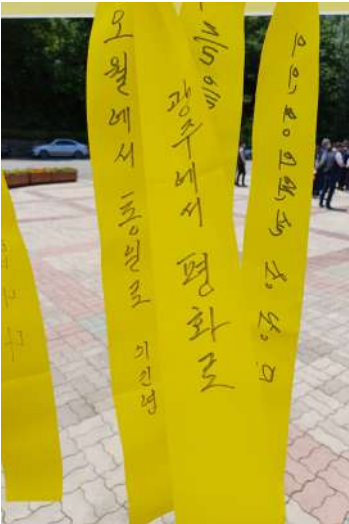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추모식 기록

일시 2024. 5. 17(금) 09:30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발행인 양재혁
발행일 2024. 5. 31
발행처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특별위원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
원순석 5·18기념재단이사장

운영위원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양재혁, 상임부회장 홍순백, 부회장 문성옥,
사무총장 임옥란, 이사 심양길·임희광·전소연·황병용, 상임감사 김성찬, 감사 정호권,
서울특별시지부장 강 원, 광주광역시지부장 문준희, 전라남도지부장 양관석

제례위원 집례 양관석 전남지부장, 초헌 양재혁 회장, 아헌 윤남식 공로자회장
종헌 문준희 지부장, 대축관 박상곤 남구지회장, 진설 홍순백 상임부회장,
알자 심양길 이사·전재룡 전 이사, 봉작 박영현 회원·정호권 감사
전작 황병용 이사·이중훈 대의원, 산신제 손장관 대의원,
헌화 진행 임희광 이사·정종문 광주지부국장

추모식사회 김성찬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상임감사

행사진행 유족회 김동형, 오행수, 이계벽, 조지영, 유하영, 기봉관, 김현수, 노윤지, 윤하은
(광주지부) 정종문, 임영례, (전남지부) 최애경, 강하은

동영상·사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봉사단 S 기록팀 김동중, 성몽제

협조 광주시민프로축구단(광주FC) 대표이사 노동일

기획/인쇄 넥스트디자인



본 도서에 수록된 도판 및 글의 저작권은 해당작가와 5·18민주유공자유족회에 있습니다.
수록된 자료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